이사장이 교비 멋대로… 지원금 빼돌리고… 채용 대가 뒷돈

전남 일부 사학 '비리 백화점'

광주시의원·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포함

전남지역 일부 사학(私學)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사장이 총장(학장) 등을 겸임하면서 교비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비롯,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국비 지원금까지 빼돌리는 등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순천 M대학 총무처장 윤모(58)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총장 이모(78)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총장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고령과 지병 등의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친인·척 관계인 총장과 총무처장은 1983년 학교 설립 이후 교수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대가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모두 15명으로부터 14억5천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계 서류를 조작해 공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총장 이씨와 총무처장 윤씨를 비롯, 이 대학 일부 교수들은 2006년도 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이들이 산학협력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꾸며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29만~338만원씩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총액으로는 478명의 편입학생 등록금 절반인 11억원이 횡령된 것이다.

이들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된 '계약학과제도'를 철저히 악용했다.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일부 학과를 '계약학과'로 정해 산업체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편·입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만 받아야 하는 데도 전부를 내게 했고, 돈은 교수들의 개인계좌로 보내도록 한 뒤 이 가운데 절반은 학교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 중에는 광주시의회 K 의원과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교비와 국비지원금을 횡령한 강진 S대 학장 이모(51)씨가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2006년 항공분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년 15억~20억원씩 지원받고 있는 국비와 학교비 등 5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비지원금 중 교수연구비를 교수들에게 통장으로 전달한 뒤 연구비 90%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고, 기자재 구입 등도 납품업체와 짜고 기자재 과다계상 수법으로 국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일에는 교비 2억원을 직원 급여로 충당하고 65억원을 병원신축과 토지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전남 D대학 전 총장 이모(79)씨가 법정구속됐으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 총장 이모(48)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에듀엑스포 개막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에듀엑스포(EduExpo) 2008 교육정보화종합전'이 23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u-러닝, 미래를 향한 도전'을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들이 선보이고 있다. 한 행사 참가자가 전자칠판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산 유류저장소 강도 4명 검거

광주 유류저장소 강도사건〈본보 15일자 7면〉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3일 유류저장소 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강모(28)씨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2시 2분께 광주시 광산구 S유류저장소에서 들어가 종업원 이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사무실 캐비닛 속에 있던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S유류저장소 사장 선모(39)씨가 K유류저장소 사장 송모(38)씨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유류를 대신 구입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 선후배들끼리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유류저장소 전 직원이었던 강씨는 사장 송씨가 현금 수천만원을 선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법정의 맞수, 온정 한마음

검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가족에 위로금

광주지검 항소 않기로

"법정에선 냉정하지만 우리도 가슴 따뜻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살인혐의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던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측의 딱한 사정에 나란히 작은 온정을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1층.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을 평의하고 있을 무렵, 정경진 검사는 아이를 안고 있는 피고인 신모(여·20)씨의 남편 A씨를 복도에서 만났다.

A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18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해 법정에 선 아내 신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날 내내 법정에서 5개월된 아이를 안고 있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매몰차게 몰아붙일 정도로 냉철한 정 검사였지만 자신도 뒤늦게 가진 5개월된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정 검사는 자신의 지갑을 털어 A씨에게 건네주었다. 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A씨에게 "어렵겠지만 힘내서 아이를 잘 키워라"고 조언했다.

정 검사의 대학 후배이면서도 법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공방전을 벌였던 김정호 변호사도 피고인 가족을 돕는데 있어 '장외경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피고인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분유·기저귀 값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A씨가 일자리를 얻는 것도 돕고 있다.

김 변호사는 "1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땐 피고인이 비정한 어머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면서 "하지만 10번 이상 접견과 피고인 가족들을 대하면서 이들의 불우하고 고단한 삶을 알고서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첫 국민참여재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검찰은 유사한 10여 건의 사건을 검토했으며, 대부분이 이번 재판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술 유출 혐의 기소 전남대 교수 등 무죄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교수와 제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는 창업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물리학과 이형종 교수와 제자 최모(32)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와 제자들이 개인 노트북 등에 가지고 있던 파일 등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면서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교수 등은 2005년 5월 광주 첨단산업체 P사가 보유한 광통신 부품 핵심공정 기술을 호주의 경쟁업체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기 도박 2명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3일 사기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26·북구 용봉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서 신모(27)씨를 상대로 이른바 '바둑이' 사기 도박판을 벌여 300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놀리는 것 같아" 대학생이 착각 폭행

쌍나팔

○…두 여중생이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착각, 폭력을 휘두른 대학생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23일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여중생을 폭행한 광주 B전문대생 김모(23)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D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광주 모 중학교 3년 H(15)양 등 2명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면서 웃자 자신을 흉보는 것으로 착각, 황양의 옆구리를 발로 한 차례 찼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황양 등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 것 같아 화가나 발길질을 했는데, 경찰에서 "3년 전 사이버 테러를 당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후부터는 누군가 웃거나 쳐다보면 괜히 짜증이 난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